

제11절 영(詠)

1. 정(亭)

1) 망양정 팔경(望洋亭 八景)

- (1) 삼바위의 저녁별 / 象岩落照
- (2) 푸른 바다의 어적 소리 / 滄海魚笛
- (3) 비래봉 소나무의 학이 / 飛峰松鶴
- (4) 말루의 밝은 달빛 / 斗樓明月
- (5) 수산 둔산 강위의 갈매기 / 二山江白鷗
- (6) 소리계봉을 나는 가을 기러기 / 鵝峯秋鴈
- (7) 봄 강물에 고기잡이배 / 春光漁船
- (8) 취운정의 소나무와 파도 / 翠雲亭松濤

2. 팔영(八詠)

1) 경파해(鯨波海)

(1) 서거정 시(徐居正 詩)

천지간 큰 것 중에 바다가 제일되니 / 天地之鉅海爲最
그 둘레가 가없고 또 그 바깥도 없다네 / 其環無際亦無外
그래서 바다를 한번 보면 다른 물은 물도 아니니 / 由來觀海難爲守
사해가 이다지도 크니 내 눈도 커졌네 / 眼高四海如許大
내 한번 시험삼아 단구까지 가서 / 我欲試往仍丹丘
삼도를 내려다보고 십주를 희롱하려 하네 / 睥睨三島戲十洲
만일에 뽕나무밭에 선수 한번 들어오면 / 待見桑田潮亦至
그대 나를 위하여 산가지 하나 더 놓아 주소 / 煩君爲我添一籌

(2) 용재 성현 시(慵齋 成俔 詩)

동쪽 바다 까마득 끝 간 데가 없는데 / 東溟杳杳無終極
위의 구름 아래 물 한빛 되었네 / 上下雲水爲一色
큰 고래 갈기를 흔들며 솟아올라 춤추니 / 長鯨奮鬣自掀舞

공중에 가득한 물결 눈꽃인양 희구나 / 滿空粼粼雪花白
 구슬 누대 층층한 집에 신광이 퍼지니 / 瓊樓層閣揚蜃光
 세 봉우리 나왔다 없어졌다 털끝 같기도 하네 / 三峰出沒如毫芒
 내 소원 긴 바람 따라 큰 물결 헤치고 / 願隨長風破巨浪
 가벼운 돛 일 만리에 부상까지 가 볼거나 / 輕帆萬里窮扶桑

2) 망사정(望槎亭)

(1) 서거정 시(徐居正 詩)

망사정 위는 신선의 집인데 / 望槎亭上神仙家
 망사정 아래는 어룡의 물결이네 / 望槎亭下魚龍波
 은하수 한 줄기 넓은 바다에 닿아 있는데 / 銀潢一帶接溟渤
 저 멀리 가을바람 따라 견우성까지 간다네 / 渺渺秋風犯斗槎
 한 번 박망후가 신령한 근원 찾은 후로 / 一自博望尋靈源
 지금까지 내왕하는 이들 모두가 신선이라네 / 至今來往皆神仙
 돌아올 때 나에게 베틀괴이는 돌을 빌려주소 / 歸來乞我支機石
 내가 그 돌 갈아서 푸른 하늘 수리하러 하네 / 我欲爲鍊補青天

(2) 용재 성현 시(慵齋 成俔 詩)

박망후의 신선 뗏목 하늘 위의 나그네라 / 博望星槎天上客
 그 손에 베틀 괴이는 돌 가지고 왔다네 / 手中探得支機石
 그 당시 객성이 자미성을 침범하였는데 / 當時客星犯紫微
 그 후엔 은하수 멀리 떨어져 있었다네 / 去後銀潢空遠隔
 정자가 동해에 임하여 까마득하게 가없는데 / 亭臨東海渺無涯
 큰 물결 번쩍번쩍 공중에 꽃이 번득이네 / 鯨濤閃閃翻空花
 신령한 근원 찾아 은하 물가에 이르면 / 倘倘尋靈源到牛渚
 아름다운 손으로 비단 빨고 있으리 / 應有素手來浣紗

3) 월송정(越松亭)

(1) 서거정 시(徐居正 詩)

평사 10리나 흰 담요 깔았는데 / 平沙十里鋪白麪
 장송이 하늘에 닿아 옥창끝도 가늘구나 / 長松攬天玉槩細

쳐다보니 밝은 달은 황금떡과 같은데 / 仰看明月黃金餅
 푸른 하늘 물 같아 넓기도 하구나 / 碧空如水浩無際
 객이 와서 1년마다 통소를 부니 / 客來一稔吹洞簫
 내가 따라가 요지에 잔치하고자 하네 / 我欲從之讌瑤池
 풍류는 모두 신선 무리이네 / 風流盡是神仙曹
 날아오는 푸른 새가 입에 벽도를 물었네 / 飛來青鳥啣碧桃

(2) 용재 성현 시(慵齋 成俔 詩)

백사장 주변 길에 푸른 솔 둘렀으니 / 白沙周道環蒼官
 신령한 바람소리 10리에 찬바람이 나네 / 靈籟十里風生寒
 용의 수염 무쇠 가지가 울창하게 가리웠으니 / 虬髯鐵幹鬱虧蔽
 검은 기운 하늘을 막아 그늘도 넓고 넓으네 / 黑入太空陰漫漫
 달빛이 그늘 뚫어 절반 쬼 어둡고 밝은데 / 月色來穿半明晦
 일만 가지 황금이 부서진다 / 萬枝璀璨黃金碎
 가다가 신선들 통소불면 / 時聞羽人吹洞簫
 안개꽃 펴렷펴렷 옥패소리 들린다네 / 霞帔翩翩鳴玉佩

4) 임의대(臨漪臺)

(1) 민수천 시(閔壽千 詩)

하늘 도끼로 무쇠를 깎아낸 듯 높기도 한데 / 天斧削鐵成嵯峨
 천년 동안 일없이 경파해에 임했네 / 千年妥置臨鯨波
 아침엔 흰 수레 꺾어지고 저녁엔 은산이 부서지는 것이 / 朝摧素車暮銀山
 선관을 불러다 연하 음식 준비했다네 / 驅勅仙官供烟霞
 나를 맞아 구경하며 구슬섬 바라보니 / 邀我登臨望瓊島
 저 아래 부상 꺾기를 풀 줍는 것 같이 하네 / 附折扶桑如拾草
 십주의 좋은 광경 오랫동안 아껴오던 것을 / 十洲光景久占吝
 반 돛의 맑은 바람 따라 내가 모두 찾으려네 / 半帆淸風吾盡討

(2) 서거정 시(徐居正 詩)

물가에 대 높게도 섰는데 / 臨漪有臺高嵯峨
 교룡은 깊이 잠들고 고래는 물결 일으키지 않네 / 蛟龍熟睡鯨無波
 부상이 바로 지척 아침 해 붉게 떠오르는데 / 扶桑咫尺出紅日

금물결 뛰어 놀며 맑은 안개 자욱하네 / 金濤鬧熟蒸晴霞
구름 사이에 어른어른 신선 사는 섬이 보이는데 / 雲間掩映見仙島
구슬나무 구슬 꽃에 구슬 풀이 자랐네 / 琪樹瓊花長瑤草
일찍이 들으니 대추가 참외만 하다는데 / 曾聞有棗大於瓜
안기생을 찾아가 놀아보거나 할거나 / 擬訪安生事幽討

(3) 용재 성현 시(慵齋 成俔 詩)

망양정 앞 일천 척 되는 대에 / 望洋亭前千尺臺
용이 당기고 호랑이 움키는 듯 푸르게 솟았네 / 龍挈虎攫青崔嵬
나고 들고 어지러운 돌들 바닷가에 꽂혔으니 / 槎牙亂石插海滸
물결이 일만 깃은 솟으매 눈 무더기 날리네 / 波湧萬丈飛雪堆
안기생 연문자가 어디쯤 있나 / 安期羨門在何許
자라 맷부리가 단구 섬에 어른거리네 / 鰲岑隱映丹丘嶼
아마도 구슬풀 향기 자욱하리니 / 想應瑤草香紛敷
맑은 바람 타고서 돌아가려 하노라 / 乘此清風欲歸去

5) 조도잔(鳥道棧)

(1) 민수천 시(閔壽千 詩)

누가 저 위험한 나무사다리로 바다 언덕을 돌렸나 / 誰將朽棧繞海隄
한 번 오르니 땅은 보이지 않고 하늘만 나직하구나 / 一臨無地天爲低
다리뼈가 시고 저린데 눈은 아찔한 것이 / 腳心酸澁眼眩轉
온종일 울퉁불퉁한 돌 위에서 개미가 기어오르듯 하네 / 盡日犖确蟻攀躋
내 평생 어느 곳에서 자빠지고 엎어지는 것 알았으랴 / 我生何處解顛僵
큰 거리에 마음껏 말을 나란히 달렸었네 / 皇衢甘載騎聯行
본래는 성질을 참는 것이 답답한데 / 從來忍性在拂鬱
역경에 있다니 험한 길 지나보니 마음이 참아지는 것 기쁘구나 / 閱險且喜堅心腸

(2) 서거정 시(徐居正 詩)

푸른 벼랑 일만 길이 바다 언덕에 임했는데 / 蒼崖萬仞臨海隄
새도 날아 지나지 못하고 푸른 하늘 나직하네 / 鳥飛不度靑天低
엷힌 외나무 사다리가 가늘기 실 같은데 / 縈紆一棧細如縷
붉은 사다리 열두 층계를 부여잡고 오른다네 / 丹梯十二勤攀躋

지나는 사람 발을 헛딛고 말은 자주 엎드려지니 / 行人失脚馬頻僵
 위태롭기 염예보다 위태롭고 높기는 태항산 보다 높네 / 危於豔湏高太行
 벼슬길에도 얹어지는 수레 많은 것이 / 君看宦道多覆車
 인간 가는 곳마다 양장 같이 굽은 길 아닌 곳 없다네 / 人間無處非羊腸

(3) 용재 성현 시(慵齋 成俔 詩)

푸른 산 바다에 꺼꾸러져 높은 멧부리 되었는데 / 靑山倒海成高崗
 벼랑에 돌린 구름사다리 양장처럼 서렸네 / 縈崖雲棧盤羊腸
 새도 날아 지나지 못하고 원숭이조차 걱정하니 / 鳥飛不度猿猱愁
 맹문 왕옥이 태항산에 잇따랐네 / 孟門王屋連大行
 이끼 낀 돌층계 기어올라 두 다리 걷고 서서 / 攀緣蘚磴露雙脚
 바다를 내려다보니 술잔만 하구나 / 傲睨溟渤如杯杓
 삼성을 만져 보고 정성을 지낸다는 적선옹은 / 捫參歷井謫仙翁
 일생에 아는 것은 금성락 뿐이겠네 / 一生徒知錦城樂

6) 탕목정(湯木井)

(1) 서거정 시(徐居正 詩)

여섯 자라 힘도 세어 산을 높이 들었는데 / 六鼈羸鼉山高掀
 아홉용이 우물을 보호하며 신령한 수원 통해서라 / 九龍護井通靈源
 더운 샘물 파스하여 훈훈하기 봄 같은데 / 湯泉溢溢盎似春
 귀신이 호위하는 듯 티끌 기운 없구나 / 鬼神呵衛無埃氛
 듣는 말엔 한 줌으로 오랜 병이 낫고 / 聞說一勺沈痾痊
 두 겨드랑으로 풍기면 뼈도 신선이 된다네 / 翰以兩腋骨亦仙
 이내 몸 지금 시와 술이 고질이 되었으니 / 我今詩酒成膏肓
 한 번 가서 쾌히 씻으려네 / 欲往快雪仍痛湔

(2) 용재 성현 시(慵齋 成俔 詩)

옥 구멍의 음화가 불 때는 것 같은 데 / 玉竇陰火如歛焚
 아홉용이 엄하게 지키며 신령한 수원 열어 놓았네 / 九龍呵護開靈源
 뭉게뭉게 연기 안개가 바위 굽이에 퍼지는 데 / 濛濛烟霧漲巖曲
 한 줄기 샘물 푸른 산 밑에서 끓어 오르네 / 一派霽沸蒼山根
 훈훈한 더운 기운 술에 취하는 것 같은데 / 融融暖氣如醉酒

가마솥에 쪄서 불 땀 일 필요없네 / 不勞鑪釜療薪爇
 몸을 씻는데 기이한 고 있으니 / 澡身浴德有奇功
 탕반에서만 티끌 때를 벗는 것이 아니라네 / 不獨湯盤脫塵垢

7) 통제암(通濟菴)

(1) 서거정 시(徐居正 詩)

매달린 절벽 일백 길, 무쇠를 깎은 것 같은데 / 懸崖百丈如削鐵
 그 위에 황금 빛 보찰이 있네 / 上有黃金一寶刹
 10홀 선방이 깊고 또 깊은데 / 十笏禪房深復深
 소나무 바람 일만 골짜기에 개인 날도 눈이 뿌리는 듯 / 松濤萬壑灑晴雪
 한 점의 세상 티끌도 여기는 날아오지 못하는 것이 / 一點紅塵飛下到
 속객은 자취를 볼 수 없었다네 / 俗客由來迹如掃
 짚신과 대지팡이로 들어가려 하니 / 芒鞋竹杖欲歸去
 흰구름 땅에 가득 바다와 산이 아득하네 / 白雲滿地迷海嶠

(2) 용재 성현 시(慵齋 成俔 詩)

층층한 멧부리 높이 솟고 푸른 아지랑이 떠도는데 / 層巒山西峯浮靑嵐
 절로 가는 외길이 소나무 전나무 수풀을 뚫고 들어가네 / 招提一逕穿松杉
 광채 영롱한 절간이 공중에 서 있는데 / 玲瓏紺宇倚天半
 금부처는 말없이 깊은 감실을 의지했네 / 金僊無語依深龕
 번망한 세상일 파초잎 언덕 속의 사슴이니 / 茫茫世事蕉中鹿
 홍진을 헤치고 백죽 중발을 찾으려네 / 願擺紅塵參白足
 짚신과 대지팡이로 먼 곳을 마다하리 / 芒鞋竹杖不憚遠
 세 사람 웃으며 서로 따라 호계 굽이를 지나리 / 三笑相從虎溪曲

8) 해당안(海棠岸)

(1) 민수천 시(閔壽千 詩)⁸⁷⁹

남쪽으로 달리는 산곡이 검푸르기도 한데 / 南走山容翠黛重
 높은 난간 바로 아래서는 고기와 용이 떠드누나 / 危欄咫尺喧魚龍
 언덕에 가득 밝은 모래는 한 눈이 넘치는데 / 一岸明沙漲暖雪
 붉은 아지랑이 눈을 가리워 아른아른 거리누나 / 紅霞襯眼迷鬆鬆
 좋은 바람 불어오는데 말은 자주 울더니 / 光風泛泛馬頻嘶
 10리 되는 비단 병풍에 옥발굽 이어진다 / 十里錦障承玉蹄
 연지 언덕으로 잘못 알까 염려함인지 / 却恐誤認臙脂坡
 산새들 종일토록 나무 가지에서 우네 / 山禽盡日枝上啼

(2) 서거정 시(徐居正 詩)

금자라 이고 있는 산 겹겹하여 / 金鰲頭載山重重
 두 언덕을 끼고 달리니 푸른 용 서렸는 듯 / 兩岸夾走盤青龍
 하룻밤 사이 좋은 바람 솔솔 부니 / 一夜光風吹嫋嫋
 해당화 여기저기 피어 붉게도 얼켰네 / 海棠開遍紅成鬆
 뉘 집의 멋진 놀이인고 준마가 울음 우는데 / 誰家幽賞駿馬嘶
 떨어진 꽃 흩어져 거센 말발굽에 번득이네 / 落花狼藉翻雄蹄
 자고새 날아오다가 놀라지도 않고 / 鷓鴣飛來不警去
 날 저문데 다시 나무가지에 올라 우노라 / 日暮更上梢上啼

(3) 용재 성현 시(慵齋 成俔 詩)

긴 독이 은은하여 바닷가에 임했는데 / 長堤隱隱臨海澨
 밝은 모래 흰 물결이 서로 삼키고 뱉네 / 晴沙雪浪相吞吐
 해당화 수없이 땅을 덮어 피었는데 / 海棠無數撲地開
 말발굽이 차고 밟아 붉은 비 뿌리누나 / 馬蹄蹴踏飄紅雨
 붉게 나부끼는 일만 점 겹 없이 나르는데 / 紅飄萬點飛無邊
 맑은 향기 은은하여 돌아가는 길손을 의심하게 하네 / 清香冉冉凝歸轡

879. 민수천(閔壽千)[1400년대 후반~1530]의 자는 기수(耆叟),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1507년 중종반정 뒤 실시한 식년문과에 3등으로 급제, 홍문관정자에 제수되었다. 1523년 황해도 경차관이 되어 흉년과 도독으로 흥흥한 민심을 위무하고 돌아왔다. 사림의 신망을 받으며 연관활동에 충실하던 그는 이때 김안로(金安老)의 편에 서서 그를 두둔하였다. 그 때문에 반대파의 견제로 강원도 관찰사·황해도 관찰사 등 외직과 대사성 과 같은 한직으로 물러났다(울진군, 2016, 위 책, 410쪽, 655쪽).

어찌하면 옮겨다 집 처마 밑에 두고 / 安得移歸茅屋下
오래 오래 서로 대하여 함께 취하여 졸꼬 / 長年對此共醉眠

제12절 유적비(遺蹟碑)·유허비(遺墟碑)

1. 경흥부사공 휘 백손 유허비(慶興府使公諱伯孫遺墟碑)

울진군 북으로부터 20리 떨어진 매정공리(梅亭孔里)의 한 구역은 옛날 장씨(張氏)가 살던 곳이다. 떠 쏘는 바닷가의 언덕바지가 기이(奇異)함을 드러내 웅결함을 나타내어 인물을 낳았으니 자못 탁월(卓越)하였다. 부사(府使) 장공(張公)은 여기서 대대로 살아 지극히 가명(家名)을 떨쳐서 우뚝이 동쪽 고을 사람들의 선망(羨望) 대상이 되었다. 을사년(乙巳年)에 나쁜 신하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뒤로는 동해의 한스러운 물결이 날마다 부사가 살던 매정마을에 몰려 곡식을 가꾸던 전장(田庄)과 병사(兵史)를 판독하던 등잔은 영영 잊히려고 하기에 자손과 뜻있는 분들의 끝없는 한을 드러냈다. 하루는 부사공의 종손(宗孫) 헌규(憲奎) 후손인 환(仁煥) 영철(永喆)이 마침 남곡(南谷) 영전(永銓)이 지은 실기(實記)를 진영(軫永)[나]에게 유허비명(遺墟碑銘)을 짓도록 책임지우니 진(軫)은 늙고 무식하며 또 글 짓는 재주는 더욱더 보잘것없어 사양했으나 어쩔 수 없어 행장(行狀)을 살펴 글을 짓는다.

공은 나면서 똑똑하여 씩씩한 약관(弱冠)의 나이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니 때는 성종(成宗) 신묘년(1471)[성종 기이다. 공은 스스로 지금은 조정(朝廷)과 지방이 분발하고 백공(百工)이 노력하여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세워야 할 터인데 스스로 구차하게 주어대며 자신만을 위한 녹리(祿吏)의 계책으로 산다면 이것은 나라의 수치라고 생각하였다. 존경하는 벗 허상국(許相國)에게 찾아가서 겉으로는 무(武)를 안으로는 문(文)을 닦아서 공자의 장(張)-이(弛)의 상황에 대처하는 도리를 터득했기에 허상(許相)은 깊이 수공했다. 정미년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내금위(內禁衛)에 제수되고 경술년 갑산진병마만호(甲山鎭兵馬萬戶)가 되었다. 그때 북쪽 오랑캐가 침입해 들어왔는데 조정에서는 허공(許公)을 영안감사(永安監司)로 파견할 것을 의논하였다. 신해년에는 여진족(女眞族)이 쳐들어와서 변방을 지키는 장수를 살해했다. 임금은 허공에게 특명하여 [영안감사] 겸 도원수(都元帥)로 유임(留任)하여 위엄을 떨칠 것을 명했다. 허공은 명을 받들어 병사들을 모아 공이 맡은 병마로서 적을 정벌하기 10개월 만에 적은 강을 건너 도망하셔서 공이 이끄는 병사는 승리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여 위안하며 은혜가 백성에게까지 미쳤다고 공 또한 한 계급을 올랐다. 연산군(燕山君)을 묘에 전보하여 삼수(三水)를 지켰으며 겨울에 귀향하여 경신년을 지나는 동안 용양위(龍驤